

“아만 버리고 하심 할 때 희망찬 미래 열려”

봉은사 우란분절(백중) 특별법문 ‘현세기에 대한 반성’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우란분절(백중) 6재를 맞이한 8월 3일 성타 스님을 초청해 특별법문을 진행했다. ‘현세기에 대한 반성’을 주제로 열린 법문에서 성타 스님은 “21세기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환호와 희망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했지만 인간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더라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부처님 법을 따라 수행하며 다음 세기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이은아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는 고(苦)를 낙(樂)으로 바꾸는 종교 불교 교리 가운데 ‘부사의변역생사(不思議變易生死) 분단생사(分段變易)’라는 말이 있다.

변역생사는 삼계를 벗어난 성인(聖人)들의 생사를 가리키는 말로, 불보살님이 이 세상에 나온 모습을 뜻한다. 삼계를 초월한 자는 그 몸을 자유자재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죽고 다시 태어난 경우에도 그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사유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부사의변역생사’를 끊어버려야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아라한은 ‘부사의변역생사’에 놓여 있다. 부사의변역생사의 경지에 오르면 스스로 만족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반 중생의 생사인 분단생사는 삼계 안의 중생들의 몸은 거칠고 고정된 형태임으로 ‘분단’이라 하는데, 몸을 줄이거나 늘리기 어렵고 고정된 형태로 이 사회에 나왔다. 왜냐하면 중생들의 바탕에는 근본번뇌라는 것이 작용해 업(業)에 의해 형과 틀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죽은 후 전생을 기억할 수 없어 삼계 안 중생들의 사유는 거칠고 부정확하며 끊임없이 밖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그 신체가 거칠고 잡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또한 중생은 애초부터 고정된 형태 속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니 삶의 근본은 낙(樂)이 아니라 고(苦)라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난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의사나 간호사가 등을 두들겨서 울게 만든다. 자의·타의든 울며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다.

울면서 태어난다는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틀에 갇혀서 태어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는 것으로 본다. 결코 우연히 우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울음을 통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태어나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불교는 인간이 태

어날 때부터 고(苦)를 갖고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고통을 낙(樂)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불교적 가르침이 위대하기 때문에 불교에 귀의해야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여러분이 잘 아바와 같이 2001년부터 21세기가 시작됐다. 여러분은 2000년을 보내고 2001년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우리는 20세기의 여러 가지 사회적 부조리, 세계전쟁 등이 종식되고 밝고 평화로운 21세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전 세계가 희망을 갖고 21세기를 맞이했지만, 결과적으로 21세기는 새로운 세기가 아니었다. 바로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20세기에 도 있었던 테러와 학살, 전쟁 등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기대와 희망으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더라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제1·2차 세계대전, 걸프전 등 세계적인 전쟁이 많았던 20세기와 21세기가 다를 바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성해야 하며, 부처님 법을 따라 수행하며 다음 세기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언행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고(苦)에서 낙(樂)으로 바뀌며, 새로운 세기가 펼쳐질 것이다.

과학은 발전했지만 부조리는 늘어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오늘날 1시간의 변화는 과거의 90년 동안 변화와 맞먹을 정도로 매일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과학은 점점 발전하는 반면 전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 이라크, 크림반도 등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휴전 상태이지 완전한 평화 상태는 아니다.



성타 스님은... 불국사에서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통도사 강원을 졸업했다. 법주사승가대학 강사와 불국사 총무를 거쳐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제 6~11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지냈다. 포교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재)성림문화재단 이사장, 동국대학교 재단이사, 전국본사주지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주 지역에서는 ‘경주경실련공동대표’로 기억되는 사람이 더 많을 만큼, 우리나라 NGO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종교계 인사 가운데 한명이다. 15년 가까이 열정적으로 환경운동에 힘써온 환경운동가이자 지역 내 시민운동의 발전에 앞장서온 실천적 인물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마음 멈춘 곳에 행복이라> <금오집> <자연과 나> 등이 있다. 투박한 문체로써 깨달음의 정수를 표현한다는 평을 받았다. 번역서 <불소행찬>과 논문 <백암사상> <경허의 선사상> <경허 선사상과 한말의 불교> <한국불교와 사회적 성격> 등이 있다.

중생은 형·틀을 갖고 태어나 자유자재하지 못하는 괴로움 느껴 욕심버리고 정신적인 것 추구해야 현실 극복하는 지혜심 생겨

전쟁이 오면 같이 따라오는 것은 빈곤문제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많은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자연재해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매일 시시각각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우리의 눈을 괴롭힌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가 지금 부정적인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국가 간 이익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분규와 전쟁도 심각하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 하는 대규모 테러들,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살해 사건들도 그렇다. 그런가 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이익추구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생하지 않고 있으며, 기득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부조리함을 저지르고 있다. 그뿐인가. 많은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잘못된 공직사회 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가 희망했던 21세기는 지난 20세기와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

다. 우리가 깊은 반성을 하지 않으면 22세기 21세기와 다를 것이다.

그러한 반성은 역사·정신적 관점과 불교적 관점으로 분류해 생각할 수 있다.

선조들의 정신을 상기하자

우리 예게는 좋은 정신이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왔다.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선조가 갖고 있는 좋은 정신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신라시대의 고은 최치원(857~?)은 화랑제도 설치와 관련해 ‘낭랑비문(화랑 낭랑의 비문)을 썼다. 여기서 그는 풍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다.

‘나라에 현묘한 도(道)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 이는 삼교(유불선)를 내포한 것으로 모든 생명과 접촉하면 이들을 감화시킨다.’

최치원은 사상으로서의 풍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삼교를 융합하는 풍류야말로 우리가 조명해야 할 고우 사상이자 인문정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우리는 옛 선조들이 함께 통해야 한다는 그 중요성을 예부터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에 와서 많은 종교들이 자신의 종교와 교리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정신사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종교를 포함한 정치, 사회적 갈등이 풍류를 통한 통합으로 가야한다.

화랑도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관창,

사다함, 백결선생 등이다. 사다함은 15세 때 전쟁을 치르며 국가에 공을 올렸고, 자신의 친구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함께 죽은 의리 있으면서도, 공익을 추구한 인물이다.

신라와 백제가 전쟁을 치를 때 신라는 약세해서 백제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어려운 관창은 곧 적진에 달려들어가 싸우다가 적에게 잡혔으나, 백제군을 이끌던 계백은 그의 어리고 또 용맹함에 탄복해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다.

백결선생은 신라시대의 음악가로서 금(琴)의 명수였다. 경주의 낭산(狼山) 밑에 살던 빈한한 선비로 세사를 달관했던 인물이다. 한번은 그의 아내가 가난을 상심하자 백결선생은 “무릇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매인 일이라서 인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대는 무엇 때문에 부질없이 상심하는가”라고 하며, 아내가 가야금으로 방아 쪼는 소리를 연주해 아내를 위로해줬다고 한다.

이밖에 원효 대사도 하심(下心)과 화쟁(話爭)의 정신으로 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실천했듯, 우리는 이런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갈등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안심(安心)은 최상의 행복

불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어만심을 버리고 겸손과 하심으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현

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집착을 버리고 현실을 수용하며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왜 그렇게 교만을 버리라고 했을까.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 닿지 않게 된다.

자기는 버리면서 남을 배려하고 존경하는 것이 교만을 버리는 것이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교만을 버릴 수 있는 올바른 자세다. 부처님은 경전 곳곳에서 “어리석으면서 현명한척 하기보다 스스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현명한척이다”고 말했다. 교만을 버리라고 강조한다.

무지함에도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을 불러온다. 교만을 버리면 내가 알게 되더라도 무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어리석으면서 스스로 현명한척 하고 생각하거나, 무지하면서 자신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겸손하면서도 교만을 버리는 참된 불자가 될 수 있다.

부처님은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해줬다. 인간의 욕망을 성취해서 현실을 극복하는 길과, 욕망보다 자기 스스로 욕심과 집착을 버림으로써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욕심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것은 과학을 통한 욕구 충족이다. 불교는 욕심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욕심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밥 먹는 것, 잠자는 것도 욕심의 일화이다. 과학이 발달 하는 이유는 현실보다 나아지겠다는 욕망의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다. 불교는 욕심을 인정하되 모든 고통을 욕심의 성취로써 해결하려는 자세를 비판했다.

욕심을 갖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비불교적이며 한계가 있다.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없고 살 수 없듯 욕심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지혜로써 해결하는 것이다. 늙는다 해서 한탄하지도 말고 죽는다고 해서 서러워하지 않는 웃을 수 있는 불자가 돼야한다.

욕심과 집착을 털고 현실을 수용해서 지혜를 가질 때 욕심은 해결될 수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욕심을 갖되 욕심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그래서 중도가 중요하다.

정신적인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불자가 될 때 현실을 극복하는 지혜가 열린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다. “건강(健康)은 인간에게 최상의 이익이요 만족(滿足)은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信賴)는 최상의 인연이 되어 줄 것이요 안심(安心)은 최상의 행복이다”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의 참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겸손과 하심으로 열심히 수행하기를 바란다.

봉

불기 2558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 대법회

행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중원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기 종도수련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일 시 : 불기 2558(2014)년 9월 15일 ~ 9월 17일 (음 8월 22일 ~ 8월 24일)
- ◆ 입 재 : 불기 2558(2014)년 9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입소등록 당일 오후 2시까지 접수요망)
-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 세면도구 등
- ◆ 장 소 : 서울 도봉구 도봉1동 494-3 대한불교대승종 도봉사(교육원) ☎02)956-4671
-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055) 25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0-4518-3247
-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대승종 중앙 종의회·대승종 교구총무원

※ 합당한 사유없이 불참시는 교육원법 제6조에 의거 법제고시 및 종단임직에 제한 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다 음

박병철(진산) 김옥재(옥운) 이동준(진덕) 최병택(지호) 김옥태(상도) 현승자(성진) 박종수(상진) 김억찬(태운) 박명정(지상) 김양주(범일) 안보문(해운) 이청일(인담) 김재길(해공) 이종숙(상기) 이성대(수월) 함창식(창현) 설희생(명관) 황미장(거산) 김양자(인명) 하청원(법승) 오양근(명수) 안양덕(고경) 최복순(상화) 송인길(상오) 안영재(운영)

이상 25명 (무순)

불기 2558(2014)년 8월 13일

대한 불 교 원 효 중

중앙종회선거관리위원장 박재열(능인)